

“미련없이 떠나고 싶은 내 조국 대한민국아, 졌다 졌어”

‘난방비 비리 폭로’ 배우 김부선

우리사회의 안전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낸 세월호 참사는 올해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를 ‘블랙아웃’처럼 집어삼켰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세월호법 제정 등을 놓고 대립을 했고, 청와대 비선실세 논란으로 뜨거웠다.

또한, 생활고를 비판 자살한 가정이 늘면서 복지 사각지대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목소리도 높였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큰딸인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국민적 분노를 촉발, 업무에서 물러난 사건은 어떤 경제정책보다도 파급력이 컸다.

조현아



국내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한다”(박근혜 대통령, 1월6일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통일시대에 대비하자고 제안하며)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숴 원수이자 제거해야 할 양 덩어리”(박 대통령, 3월1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규제개혁을 강조하며)

◇“실세는 청와대 진돗개”(박 대통령, 12월8일 여당 지도부와 오찬에서 비선 실세 논란을 농담으로 일축하며)

◇“저녁이 있는 삶을 돌려 드리지 못해 송구스럽다”(새정치연합 손학규 상임고문, 7월31일 7·30재·보궐 선거 패배 후 정계 은퇴를 선언하며)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온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 뒤에 설명 지옥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 통일이다”(류길재 통일부 장관, 6월24일 세종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 회의에서 특강을 통해 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이번에 좁은 오솔길을 냈는데 앞으로 대통령로 열어가자”(북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10월4일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폐회식 직후 정홍원 국무총리와 경기장 내 한 사무실에서 재담을 하며)

◇“현재의 부동산 규제는 한여름 옷을 한겨울에 입고 있는 격이다”(최경환 경제부총리, 6월 13일 부총리 내정후 자택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부동산 대책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사기업이나 외국기업이 아니라 정부 땅 사는 것이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정봉우 현대차그룹 회장, 9월18일 한전부지 땅을 10조5500억원에 낙찰받은 뒤 고가 인수논란이 일자, 다음날 한전부지 인수에 참여한 직원들을 격려하며 밝힌 소감)

◇“대한민국의 딸로 태어난 것이 자랑스럽다. 휴련 기간을 거치며 더 큰 자부심을 느끼게 됐다”

한 단독주택의 반지하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된 세 모녀의 유서에서)

◇“미련없이 떠나고 싶은 내 조국 대한민국아, 졌다 졌어”(김부선, 난방비 중간수사에서 난방비 조작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지난 10월 경찰의 발표에 대해 항의하며)

◇“아권 신당, 차선이지만 역사의 도도한 물결”(박원순 서울시장, 3월18일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제3차대 창당’ 결정에 대해)

◇“지지율은 공중의 새털...시장 직무에 충실할 것”(박원순 서울시장, 9월25일 미국 방문 중 특파원 간담회에서 대선 출마 의사를 묻는 질문에 답하며)

◇“작은 개미굴이 독 전체를 무너뜨린다”(황교안 법무부 장관, 11월25일 헌법재판소 정당해산심판 최후진술에서 통합진보당을 개미굴에 비유하며)

◇“암수수색 할 때 협조하지 않으면 직접 문을 따는 것처럼 할 수밖에 없다”(김진태 검찰총장, 10월23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다음카카오의 감정영장 집행 거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댓글 사건 판결은 지극히 위대”(김동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9월12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의 글에서)

◇“못난 아버지를 둔 딸아. 미안하다”(고승덕 서울시교육감 후보, 투표를 하루 앞둔 6월3일 저녁 강남역 사거리 유세에서 페이스북에 ‘아버지는 교육감이 될 자격이 없다’는 글을 올린 딸 캔디 씨에게)

◇“전쟁을 준비하지는 게 아니라 민족공멸을 막기 위해 반전을 준비하는 화두를 제시한 것이다”(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2월3일 수원지법 내란음모 1심 결심공판 최후진술)

◇“진보 좌파 무상파티 이제 종식돼야”(홍준표 경남도지사, 12월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무상급식과 관련해 진보 진영의 정치권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내며)

◇“총리는 몇년 된 차를 타고 계시나?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은 15년, 30년 된 비행기를 타면서 유서를 써놓고 일 한다”(광주 소방헬기 추락사고 유족, 7월17일 강원소방헬기가 광주에서 추락, 5명이 순직한 가운데 7월20일 강원소방헬기 1호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대원들의 빈소가 마련된 강원도 춘천 거두리 효장레시장에서 박인두 소방총리의 한 유족이 조문하는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한 말)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다. 가슴이 아프다.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있다”(프란치스코 교황, 8월14일 공방에 영접 나온 환원단과 인사를 나누다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을 소개받자 원소를 가슴에 얹고 슬픈 표정을 지으며)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결과다. 정의는 우리가 과거의 불의를 잊지는 않되 용서와 관용과 협력을 통해 그 불의를 극복하려고 요구한다”(프란치스코 교황, 8월14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 뒤 한 연설에서)

◇“신에게는 아직 열두 척의 배가 있습니다”(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을 그린 영화 ‘명량’에 등장하는 이순신의 명대사)

◇“택시비만 200만원이 나왔어요”(여자 프로골퍼 김효주, 9월16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뒤 현지 항공사 파업으로 프랑스 에비앙 레방에서 파리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해 택시비가 너무 많이 나왔으며)

◇“내 경기력은 100점 만점에 120점을 주고 싶다”(피겨선수 김연아, 2월21일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고 은퇴하면서 체력적, 심리적 한계를 이겨내고 만족스러운 경기를 펼쳤으며)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8월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유지총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시복식’에 앞서 카 페리드를 하던 중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김영오 씨를 위로하고 있다.

내려! 매뉴얼 찾아봐

‘송파 세 모녀’ 5만원, 나는 0원 김중대 건보공단 전 이사장
국정원 대선 불법개입 삼척동자도 안다 김동진 판사
총리는 몇년 된 차를 타고 계시나? 헬기추락 사고 유족



김연아

(재벌가 딸 중에는 처음으로 9월 군 장교로 입대해 화제를 모은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차녀 최민정(23)씨가 훈련 중 면회를 온 지인들에게 밝힌 소감)

◇“올해 초 세상을 등진 ‘송파 세 모녀’는 매일 5만여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했지만, 나는 0원”(김중대 건강보험공단 전 이사장이 퇴임을 앞두고 11월6일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불합리한 건보료 부과체계를 지적하며)

◇“저도 인간인지만 범대본의 여러 공직자와 잠수사들을 다그치기도 하고 화도 내기도 하며, 순간순간 거의 무능함에 절망감이 들기도 했다”(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11월18일 217일동안 본부장을 맡았던 세월호 범정부사고대책본부 해체하는 자리에서 소회를 밝히면서)

◇“채용면접 때 지원자들이 자신의 소신을 말하지 않고 모범답안을 외우고 와서 한결같이 똑같은 대답만 해 안타까웠다”(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4월8일 연세대 강연에서 앞으로 인문학 소양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내려! ‘매뉴얼 찾아봐’(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큰딸인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이륙 준비중이던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 사무장에게 한 것으로 알려진 말)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짐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2월 송파구

사고로 순직한 대원들의 빈소가 마련된 강원도 춘천 거두리 효장레시장에서 박인두 소방총리의 한 유족이 조문하는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한 말)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다. 가슴이 아프다.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있다”(프란치스코 교황, 8월14일 공방에 영접 나온 환원단과 인사를 나누다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을 소개받자 원소를 가슴에 얹고 슬픈 표정을 지으며)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결과다. 정의는 우리가 과거의 불의를 잊지는 않되 용서와 관용과 협력을 통해 그 불의를 극복하려고 요구한다”(프란치스코 교황, 8월14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 뒤 한 연설에서)

◇“신에게는 아직 열두 척의 배가 있습니다”(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을 그린 영화 ‘명량’에 등장하는 이순신의 명대사)

◇“택시비만 200만원이 나왔어요”(여자 프로골퍼 김효주, 9월16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뒤 현지 항공사 파업으로 프랑스 에비앙 레방에서 파리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해 택시비가 너무 많이 나왔으며)

◇“내 경기력은 100점 만점에 120점을 주고 싶다”(피겨선수 김연아, 2월21일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고 은퇴하면서 체력적, 심리적 한계를 이겨내고 만족스러운 경기를 펼쳤으며)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세월호 유족 고통 앞에서 중립 지킬 수 없었다 교황

나는 계속 일하고 싶다 25년째 우즈벡 통치 카리모프 대통령

국외

◇“세월호 유족의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 없었다”(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을 마치고 8월18일 바티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은 침략으로 끌려가 이 용당했지만, 인간적인 품위를 잃지 않았다”(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을 마치고 8월18일 바티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과거 히틀러도 러시아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사람들은 이를 기억해야 한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12월 4일 연례 국정연설에서 서방 제재에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면서)

◇“세계가 새로운 냉전 직전의 상황이며, 이미 신(新) 냉전이 시작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11월 8일 베를린 장벽 붕괴 25주년 기념연설에서)

◇“중국이라는 사자는 이미 깨어났다. 이 사자는 평화적이고 온화한 문명의 사자다”(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3월 27일 프랑스 파리 방문 때 앙겔라 메르켈 50주년 기념대회 강연에서 “중국은 잠자는 사자다. 만약 잠에서 깨기만 하면 세계를 진동시킬 것”이라는 나폴레옹의 명언에 빗대어)

◇“숨을 못 쉬겠다(I can't breathe)”(에릭 가너, 7월 17일 뉴욕시 스태튼아일랜드에서 한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뒤에서 팔을 감아 계속 목을 조르자)

◇“손들었다, 쏘지마(hands up, don't shoot)”(뉴욕과 미주리주 피겨스에서 백인경찰의 손에 숨진 흑인들과 관련, 대대심이 불기소 결정을 하자 미국 내 전국적 시위 과정에서 등장한 슬로건)



푸틴

시진핑

◇“분명하게 말하자면 난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우며 이는 신이 내게 준 선물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나 스스로 운동권 활동가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내가 다른 이들의 희생으로부터 얼마나 혜택을 입었는지는 깨닫고 있다”(에플 최고경영자 팀 쿡, 10월 30일 ‘커밍아웃’하면서 다른 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며)

◇“난 정말 지쳤다. 그건 사실이다”(헤수스 무리요 카람 멕시코 연방경찰 총장, 학생 43명 실종사건 수사관련 기자회견 중 “그만하자, 지쳤다”라고 한 발언이 문제가 되자 11월10일 이를 해명하면서)

◇“보수당은 미워도 영국은 지켜달라”(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스코틀랜드 독립투표를 8일 앞둔 9월 10일 에든버러 방문연설에서 유권자들에게 영국 연방 유지를 위한 반대표 행사를 호소하면서)

◇“나는 계속 일하고 싶다. 이게 왜 잘못된 일인지를 모르겠다”(25년째 우즈베키스탄을 철권통치하고 있는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이 5월 15일 내년 대선에도 출마할 뜻을 밝히며)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014년12월15일~2015년 3월15일 **제주도여행폭탄세일**
나를 제주여행을 (2박3일) ₩109,000원에게만♪

선박(씨스타크루즈)08:50목포항출발 ₩109,000원~ 수항공(아시아나)15:40광주공항출발 ₩189,000원~

<p>1일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박 08:00 목포항집결 13:30제주항도착직원미팅 수무원테마파크-아이스뮤지엄-트리아트 항공 14:30 광주공항집결 16:20제주공항도착직원미팅 HOTEL: 일반호텔(4~6인실) 	<p>2일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식후-아침이 이쁜솔밭바다~외돌개 올래6.7코스트래킹 서부작대마을-김글타기체험*중문교구~별내전전당대 전연년대농지대 중식후-카멜리아 힐-겨울의꽃 동백동산 	<p>3일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식후-민.공예품전시장*조랑말체험 제주성민속박물관-중식 평지기해안-제주오름을 한눈에볼수있는 드라이브수상간도로 에코랜드-기차타고꽃자왈(자연원시림)숲지대관광 농.수산물직매장 - 해녀촌
---	---	--

포함사항: 선박여행료, 현지차량료, 입장료, 숙박료, 식사, 여행보험, 불포함사항: 음주(한자음료)기차타고(도착)료(₩10,000) *광주출발-목포-광주도착(20명이상)선박(₩120,000원)

2015년 해맞이 제주성산일출봉 **선상해맞이** 세계자연유산거문오름트래킹
2014년12월30일~2015년1월1일 올미년(2박3일) 특별회원이₩220,000원

<p>1일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06:30광주역출발-08:50목포항출발 13:30목포항도착미팅-한라수목원-도깨비도로 용두암-용현(흔들흔들구름다리) 숙소: 일반호텔(4~5인실) 	<p>2일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식후-07:30출발-08:40도착-09:00에막 세계자연유산거문오름트래킹(약2시간30분) 중식후-새연교(새로운인연을맺는곳) 김글타기체험-서부작대마을 약천사-서커스월드(해피타운) 숙소: 일반호텔(4~5인실)
---	--

포함사항: 여행보험, 선박료, 전용차량료, 숙박비, 전일정당료, 간식 불포함사항: 개인경비, 기사, 가이드(₩10,000원) *싱기일정은 현지 사정으로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015년 겨울방학특선 **강원도 화천군 산천어축제** 무박2일, 1박2일 회원님을모십니다
기간: 2015년 1월10일(토)~2월01일(일)까지 장소: 강원도 화천군 산천어 축제장

무박2일
출발지: 광주역23:00집결, 23:30출발
포함사항: 전용버스, 입장료, 숙박비, 조식, 중식(상품권), 여행자보험
회비: 주중 ₩89,000원 주말(금,토,일) ₩99,000원

1박2일
1일째 ▶ 광주역08:00출발-남이섬-강원도화천군숙박
2일째 ▶ 조식후-산천어축제장-15:00출발-광주
포함사항: 전용버스, 전일정당료, 숙박(모텔4인1실), 숙박비, 식사4식(중식2회, 석식1회, 조식1회), 여행자보험
회비: 주중 ₩169,000원 주말(금,토,일) ₩189,000원
*20명이상출발가능 *예약담당: 문명구 HP: 010-3999-3226

축제 산악회 매일 첫째주 화요일 두일동 07:30 광주역 08:00에회관 08:10 출발합니다.홍보이서: 문명구 HP:010-3999-3226

※문의처 | 해외, 국내, 섬투어 전문여행사 **황제관광여행사** 광주광역시북구효산로5 ☎062)267-8580 ★ 담당자 | 문명구HP:010-3999-3226 FAX:062-267-8581